

# ‘반문 깃발’ 든 윤석열, 수권능력 입증·安과 단일화 과제

### ‘洪 끌어안기’ 원팀 이루고 밖으로는 야권 단일구도 구축 정치신인 이미지 벗고 안정감 보여야...청년층 확장도 숙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지만 대권 고지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웃돌며 여론 지형이 야권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선 승리를 위해선 윤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의 중심 역할을 하며 외연 확장을 이뤄내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당 혁신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 신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수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도 숙제다.

◇ 당시 하나로 모아내야...安과 단일화 여부 숙제 =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쟁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만큼 우선은 내부 화합적 결집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다. 그동안 윤 후보는 전·현직 의원이 대거 결집한 ‘매머드급’ 캠프를 구성했지만 원팀 기조를 위해선 당내 다양한 인사를 중용하는 화합형 ‘용광로 선대위’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인 ‘서초동’ 인맥을 당에 어떻게 결합할지도 과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할 경우 기존 경선 캠프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할 것이라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기존의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도 관건이다. 현재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선이 여야 4자 구도로 일단 출발한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나 단일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 구도를 형성할 경우 당 안팎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권 대통령론에 맞서 안 대표, 그리고 제3지대에서 독자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아우르며 야권내 다자구도를 단일구도로 묶어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 반문 기치 넘어서는 정책 역량·수권 능력 제시 숙제=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은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빠이른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기수’를 자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를 ‘문재명’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비상식·불공정·위선으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연장을 막겠다는 목표다. 경선 승리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심·민심이 결집한 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본선 무대에서는 반문(반문재인) 정서만으로는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여권과 차별화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는 정치입문 4개월의 ‘정치 신인’으로서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경쟁자들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및 경선후보들과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홍준표 경선후보, 윤석열 후보, 유승민·원희룡 경선후보,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부터 ‘준비가 덜 됐다’,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공격을 받았다. 본경선에서만 10차례의 토론을 거치며 ‘토론 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 경력에서 앞서는 이재명 후보와 맞서려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

뢰감을 유권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20~40대 지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398 후보(20대의 3%, 30대의 9%, 40대의

8% 지지율)”라는 비판을 받았다. 20·30세대의 지지세가 강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조 관계를 이뤄 이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킹메이커’ 김종인의 귀환...尹 선대위 인선 첫 시험대

### 캠프해체 수준 새판짜기 주문 캠프 중진들 합류 여부 주목

야권의 ‘킹메이커’라 불리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귀환판이 조망기에 들어가면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과 선대위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경선 캠프를 전면 해체하는 수준으로 선대위 재편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캠프 좌장급 인사들의 선대위 합류 등을 놓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에서 ‘원톱’ 총괄선대위원

장을 맡아 대선 본선 국면에서 선대위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예정된 오는 15일 이후 20일을 전후로 선대위 합류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밑에선 벌써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논의를 둘러싼 험겨루기가 시작된 모습이다. 가장 이목이 쏠린 부분은 캠프를 이끌어 온 중진 의원들의 선대위 합류 여부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중진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던 기존 캠프를 사실상 해체하고 본선용 선대위 진용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후보가 경선 기간 동고동락했던 캠프 주요 인사들을 선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힘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이밖에 윤 후보가 선대위에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대위 구성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로 윤 후보는 경선 기간 정부와 정책 양측에서 물밑 조연을 해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본선에서 전면에 나서 지원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병준 전 위원장이 본선에서 윤 후보를 도우려면 두 전직 비대위원장 간의 역할이 교차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우리는 깐부”...홍준표 “역할 종료”

### 국민의힘 ‘원팀’ 빠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경선에서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을 향해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손을 내밀었으나, 홍 의원이 “경선 흥행 성공으로 역할이 종료됐다”고 사실상 뿌리쳤

다. 경선 종료 후 2030의 탈당 행렬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 의원이 선대위 참여 등 본선에서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팀’ 기조가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주말에

홍 의원을 비롯해 세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세 후보들과 만나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번 대선에서 저를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갯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와 불화 ‘적폐청산 칼잡이’ 서 野 대선 후보로

###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누구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정치입문 불과 4개월 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다.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대학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윤 후보는 유년 시절 경제학자의 꿈을 꾸기도 했으나,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5·18 민주화운동 직전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으로 석 달간 피신한 일은 유명한 일화다.

대학을 졸업하고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후보는 늦깎이 검사로 평범한 이력을 거치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특수 사건에 투입되며 ‘칼잡이’로서 명성을 쌓았다.

윤 후보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뒷선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내지른 국정감사의 작심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정권에 밀보

여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 4년여간 유배지를 떠돌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특수검사로서는 솜씨가 좋긴 했지만 윤 후보는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위 ‘촛불 혁명’의 공신으로 선배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고,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조국 사태는 오늘날 ‘정치인 윤석열’이 있게 한 변곡점이었다. 검찰 수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문자 그대로 행동에 옮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밀어붙이다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시도하는 여론과의 정면충돌이 겹치며 현 정권과의 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윤 후보는 지난 3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인기를 넉 달여 남기고 전격 사퇴, 광야로 나섰다. /연합뉴스

## 장성 토지(매매 분양)

1 200평, 2 300평, 3 160평, 4 160평, 5 150평, 6 150평, 7 150평, 8 150평, 9 150평

110m (약 203평) 6m 도로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 010-6670-9800

## 2022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인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 작성)	2021. 11. 9.(화) 09:00 ~ 11 24.(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인학) 후 원서 등용 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11. 9.(화) 09:00 ~ 11 24.(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력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원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일시	2021. 12. 7.(화) 10:00 ~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한 장소 (선분중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12. 22.(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발전지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목펌프

###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이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